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활동 기간: 2025.10. ~ 2026.10.

제52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가.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개요

1. 제52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는 생성형 AI가 뉴스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을 빠르게 바꾸어 놓는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역할과 정체성을 학계와 현장이 함께 다시 묻기 위해 꾸러졌다. 위원회는 학계, 언론 현장, 플랫폼·AI 산업, 정책연구 영역을 아우르는 8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위원 구성은 AI와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를 이론과 실천, 산업과 정책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제52대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위원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정은령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위원	고문정	네이버 연구위원
위원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	신우열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	양효걸	MBC 도스트11 대표
위원	유대근	한국일보 사회정책부 부장
위원	이성규	블루닷에이아이 공동창업자 겸 대표
위원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 위원회는 한 해의 주제를 ‘AI 시대의 저널리즘의 재구성(reconfiguration)’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재구성은 조직이나 직무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뉴스 생산의 실천, 언론의 개념과 제도, 수용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배열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분석 틀이다. 이 주제 아래 위원회는 세 갈래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펼쳤다.
3. 먼저 3월 1차 기획세미나에서 ‘AI 시대, 저널리즘은 왜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의 직능 변화와 AI 플랫폼의 언론성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봄철 정기학술대회 대주제 세션 II에서는 저널리

즘 이론의 재형성과 뉴스 이용 경험의 재설계라는 두 축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아울러 학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AI 시대 언론사 기자 교육 개선 방안」(2026년 4월~11월)을 위원회가 맡아 수행하며, 재구성 논의를 뉴스룸의 역량과 교육이라는 실천적 과제로 구체화하였다.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해 규범·이론적 성찰과 이용자 연구를 거쳐 기자 교육이라는 실행 방안에 이르는 이 흐름을 통해, 위원회는 AI 시대 저널리즘의 의제를 문제 제기에서 대안 모색까지 이어가고자 하였다.

나. 주요 활동

1. 기획세미나: AI 시대, 저널리즘은 왜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위원회는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2~5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2층 가온 강의실에서 첫 기획세미나를 열어 한 해의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세미나는 생성형 AI가 저널리즘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기술을 넘어,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며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관한 기존의 전제를 흔들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순서	제목 및 내용	발제·참여자
발제 1	방송미디어형 AI 솔루션 도입에 따른 직능별 변화와 뉴스룸의 재정의	양효걸(MBC 도스트11)
발제 2	AI 플랫폼은 언론이 될 수 있는가: 언론 개념 논의를 넘어 책임 중심 접근으로	박아란(고려대 미디어학부)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김학재(KBS), 김현지(동아일보), 이성규(블루닷에이아이)

첫 번째 발제는 생성형 AI 솔루션이 취재기자, 아나운서, 촬영기자 등 전통적인 저널리즘 직군에 가져오는 실존적 위협과 기능적 변화를 현장의 시각에서 짚고, 뉴스룸과 직무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AI 플랫폼이 뉴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실제로 수

행하는 언론적 기능에 주목하여, ‘언론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온 기존 논의의 한계를 검토하고 책임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방송사, 신문사, AI 스타트업에 소속된 토론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공유하며, 재구성 논의가 학술적 의제이자 현장의 당면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2.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대주제 세션 II 조직

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대주제 세션 II ‘AI 시대 뉴스룸의 실존적 재구조화: 이론적 지평의 확장과 이용자 경험의 재설계’를 기획·조직하였다. 기획세미나가 현장의 변화와 제도적 쟁점을 진단했다면, 이 세션은 생성형 AI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기존 저널리즘 이론을 성찰하고, 뉴스 이용 경험이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세션 1. 저널리즘 이론의 재형성: 규범적 가치와 인식론적 토대의 확장
첫 번째 세션은 저널리즘의 전통적 핵심 가치인 객관성을 어떻게 재이론화(re-theorizing)할 것인가를 AI 시대와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의 등장이라는 두 맥락에서 다루었다. 오세욱은 AI 시대에 객관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규범적 틀로서 ‘투명성’의 개념과 구현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종명은 새로운 실천 주체가 득세하는 가운데 저널리즘의 경계와 객관주의 문법, 정당성의 승인 질서가 어떻게 균열되고 재편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세션 2. AI 대전환기, 뉴스와의 결별인가 재결합인가

두 번째 세션은 AI 등장 이후 정보 탐색 경로가 바뀌는 상황에서 언론이 이용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새로 설정할 것인가를 탐색하였다. 김영주·정재민·정용국 연구팀은 AI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지형을 분석하여, 지금 언론 현장에 가장 필요한 질문은 이용자와 함께 설계하는 신뢰의 조건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소은·박찬경 연구팀은 ‘뉴스’와 그 생산 주체인 ‘언론’을 구분하는 이용자의 인식 체계를 추적하여, 파편화된 미디어 지형에서 언론의 실천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단

초를 제공하였다.

세션	발표 제목	발제	토론
세션 1	AI시대, 새로운 객관성으로서 투명성 구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오세욱(선문대)	박소영(조선대·현 인하대) 함형건(YTN)
세션 1	저널리즘 경계 재구성: 새로운 저널리즘 행위자의 특세와 객관주의 문법의 인식론적 변동	이종명(충남대)	박선희(조선대) 박영흠(성신여대)
세션 2	관심은 높고 신뢰는 신중하다: AI 저널리즘 수용 조건과 이용자 인식 지형	김영주(한국언론 진흥재단) 정재민(KAIST), 정용국(동국대)	이재길(한림대) 최수진(경희대)
세션 2	뉴스와 언론은 어떻게 다른가?: 뉴스의 지평과 언론의 경계	이소은(부경대) 박찬경(경북대)	안수찬(세명대) 황현정(KISDI)

3.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용역 「AI 시대 언론사 기자 교육 개선 방안」 수행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AI 시대 언론사 기자 교육 개선 방안」을 맡아 수행하였다. 학회 차원의 연구용역사업이지만 정은령 위원장이 책임연구원을, 박영흠 위원이 공동연구원을 맡아 특위가 주도하였으며, 올해 위원회의 주제인 ‘저널리즘의 재구성’을 뉴스룸의 역량과 교육이라는 구체적 차원에서 이어 간 작업이다. 연구진에는 공동연구자로 장희수 매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언론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11월 발간된다.

이 연구는 AI시대의 기자 교육을 AI 도구 사용법 교육이 아니라 저널리즘 실천의 기본 역량을 높이는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보고, 기자 24명을 비롯해 언론학자, AI 기업, 언론재단, 뉴스기술·서비스 직군 등 4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심층인터뷰와 FGI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금 기자들에게 가장 결핍된 역량으로 진단된 인터뷰, 질문하는 능력, 검증, 판단력이 바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기자 고유의 역량과 겹친다는 ‘역량-정체성

간극'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자로서의 역량을 익히기도 전에 AI와 맞닥뜨린 저연차 기자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목해야할 징후로 발견했다. 연구진은 언론사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I시대 기자 교육의 과제는 교과과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룸을 '학습하는 공동체'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 커리큘럼과, 기자들이 스스로 교육내용을 제안하는 상향형 교육방식, 경영진의 교육시간 업무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 소회 및 제언

지난 한 해 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AI와 저널리즘에 관한 논의를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재구성'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묶어 낸 데 있다. 그러나 1년의 임기 안에 문제의식을 실제 뉴스룸에서 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앞으로의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의제의 연속성 확보다. 'AI시대 저널리즘의 재구성'은 한 해에 마무리될 주제가 아니다. 차기 학회에서도 중장기 의제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계-현장 공동연구의 제도화이다. 언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세미나 형식의 의견 교환을 넘어, 언론사·플랫폼과 연구자가 데이터와 사례를 공유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매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성과의 축적과 확산이다. 'AI시대 저널리즘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와 학술대회 발표 내용들이 휘발되지 않고 연속 작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학회지 특집호, 단행본, 정책 브리프 등의 형태로 정리·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2대 언론학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